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퇴직연금

- 동향 : 노후설계 상담 10명 중 8명 '노후준비 인식 바뀌어'
- 이슈 : 중고령층의 주관적 기대감과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8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 확대

- 중국 경제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9월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회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 7분기 연속 하락: 중국경제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7.4%로 2/4분기의 7.6%보다 하락하였으며, 2010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
 - 9월 경기지표는 개선: 소비, 투자 지표가 소폭 개선된 가운데 수출증가율이 8월 2.7%에서 9월 9.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무역수지도 2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한편, 11월 출범하는 시진핑 정권의 경기부양책 기대감도 경기 회복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음

○ 금융 동향: 국내외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혼조

- 국내외 경기 지표의 개선이 더딘 가운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면서 환율과 증시는 떨어지고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하락세 지속에 따른 채권 수요 확대로 10월 12일 2.77%에서 10월 24일 현재 2.81%로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10월 12일 1,110.5원에서 10월 24일 현재 1,103.5원으로 7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10월 12일 1,933.2에서 10월 24일 1,913.9로 19.3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10월12일	10월24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6	4.2	3.4	3.4	3.4	2.8	2.4	-	-
	산업생산(%)	7.0	10.6	7.2	5.3	5.3	4.2	1.5	0.3	-
	소비자물가(%)	4.0	4.5	4.2	4.8	4.2	3.0	2.4	1.2	2.0
	실업률(%)	3.4	4.2	3.4	3.1	3.0	3.8	3.3	3.0	2.9
	경상수지(억달러)	276.5	26.1	54.9	69.0	126.7	25.6	111.4	23.6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2	3.80	3.68	3.60	3.41	3.45	3.39	2.77	2.81
	원/달러(원)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1.3	1,152.1	1,110.5	1,103.5
	코스피지수(P)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14.0	1,854.0	1,933.2	1,913.9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10월 12일은 8월, 10월 24일은 9월 수치임.

□ 경제 이슈: 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 유로존 불안 지속

최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2단계 하향 조정되었고 스페인에 대한 전면 구제금융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울러 잠복된 위협요인들로 인해 유로존은 2013년에도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2013년 유로존에 잠복된 위협요인은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채위기가 반복되는 함정에 빠져있다.** 유로존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93.6%에서 2013년 94.9%로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2013년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6,543억 유로에 달하고 이중 53%인 3,500억 유로가 몰려 있는 2013년 4월까지 부도 위기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스페인을 포함한 재정위기국들의 채권 만기가 많이 몰려 있는 2012년 12월(757억 유로)과 2013년 4월(718억 유로)에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둘째, 위기의 방화벽도 취약하다. ECB 신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2013년 실질 대출여력의 감소가 위기 방어력을 제약한다. 2012년 10월 15일 현재 위기국의 총 국가부채는 3.8조 유로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기구의 대출여력 합계는 6,480억 유로에 불과하다. 특히, 유럽안정화기구(ESM)에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국가들의 지분 18.8%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대출 여력은 5,540억 유로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2013년 7월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유로존의 대출여력 가운데 1,48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셋째, 유로존의 성장 동력이 미약하다. 유로존은 소비자 신뢰 수준이 2012년 3/4분기 -24.0으로 최저 수준이고, 신규 일자리도 2012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 128만개 감소하는 등 내수 활성화 여력이 부족하다. 2009년 65.3%에서 2011년 63.1%로 감소한 역내교역비중도 위기국의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7월 유럽정상회의

에서 합의된 성장정책 규모도 유로존 GDP의 0.9%로 경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스페인 금융 부실의 확대가 유로존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스페인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 2011년 1월 6.1%에서 2012년 7월 9.9%로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2010년 이후 2,500억 유로 이상 유출되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미노식으로 기업과 가계의 민간부채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리더십도 취약하다. 유로존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新재정협약 시행,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리더십도 부족하다.

○ 시사점

2013년 유로존의 미약한 경제 회복과 잠복된 위험요인들로 인해 위기가 재차 확대 되면 세계경제의 침체 폭도 커질 것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 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한 국제공조 강화, 수출 경기의 악화 방지 및 금융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동향: 노후설계 상담 10명 중 8명 '노후준비 인식 바뀌어'

-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상담자 1,584명에 대한 첫 실태조사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요약)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이용자 1,584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행동변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17일 밝힘

-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 노후설계서비스 >

- 국민노후준비 지원강화를 위해 2008년 4월부터 실시한 재무상담 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시작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2011년 4월부터는 일자리·건강·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 141개소의 행복노후설계센터(지사 91개소, 지역사무소 50개소)를 통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상담 추이: 10만 7천건('08) → 22만 5천건('09) → 27만 6천건('10) → 41만 3천건('11) → 38만 6천건('12. 9월.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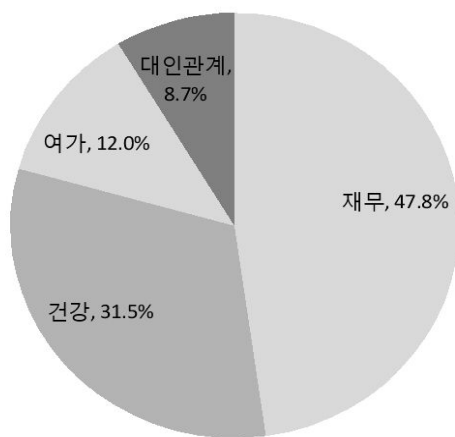
- 조사항목은 ① 노후설계 상담 전·후의 변화, ② 노후설계의 상담품질, ③ 노후준비 종합진단 활용도 측정 등 3개 영역의 9개 항목임

○ 노후설계 상담 후 국민들의 노후준비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상담을 받은 후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인식변화)"는 응답이 81.2%, "노후준비 행동(실천)이 증가하였다(행태변화)"가 5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노후설계 상담이 노후준비를 위한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 상담품질에 대해 “노후설계 상담직원이 전문성이 있다” 85.9%, “제공된 정보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80.8%, “상담직원의 응대태도에 만족한다” 98.3%, “상담의 이용절차는 편리하다” 96.5%로 응답하여 노후설계 상담품질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노후준비 진단서비스*가 “본인의 노후준비상태를 잘 진단하고 있다” 83.6%, “노후준비 진단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83.6%이며, 진단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영역은 재무(47.8%), 건강(31.5%), 여가(12.0%), 대인관계(8.7%)순으로 나타났음

노후 진단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은?



*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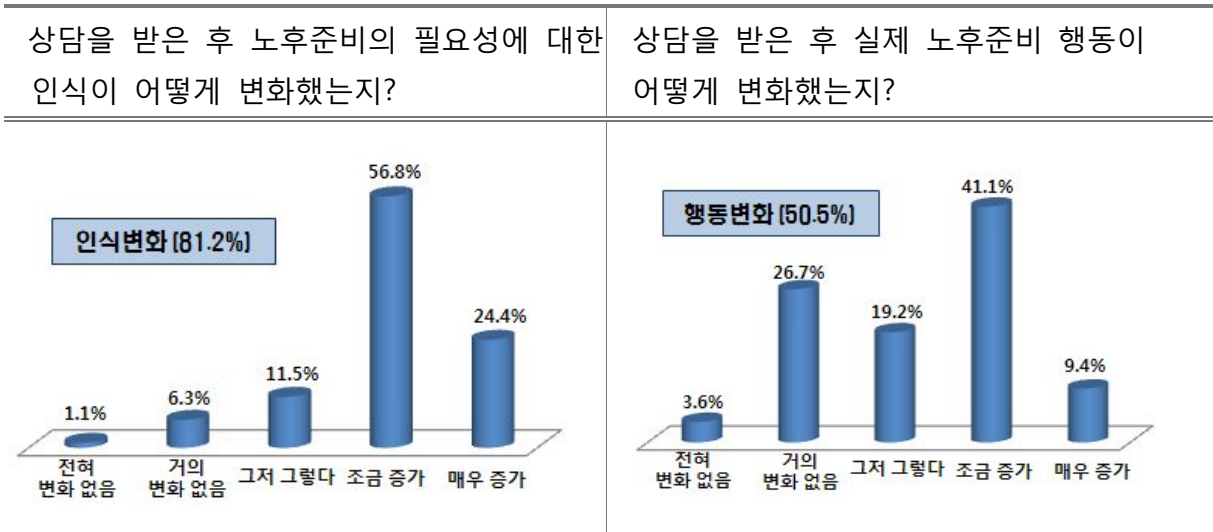
현재 노인들이 어려움(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소일거리 없음, 외로움/소외감,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을 겪고 있는 4가지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상태 진단을 통해 재무·비재무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음

○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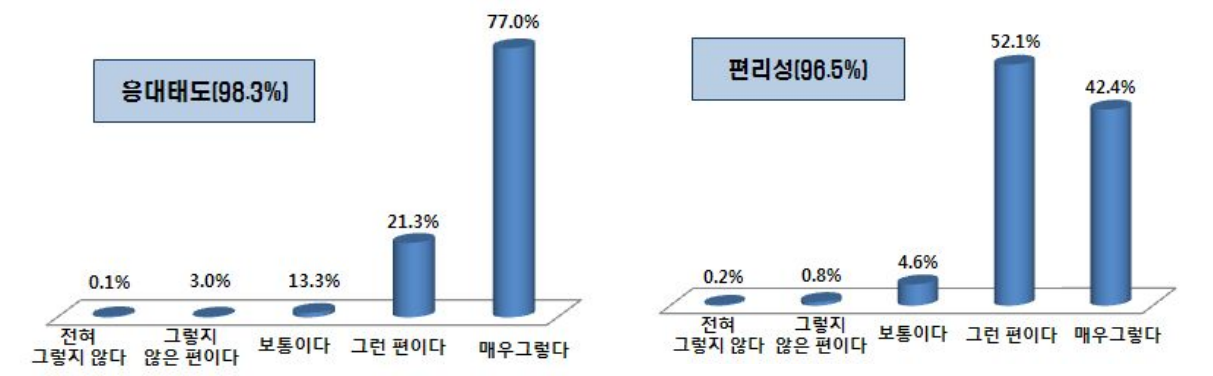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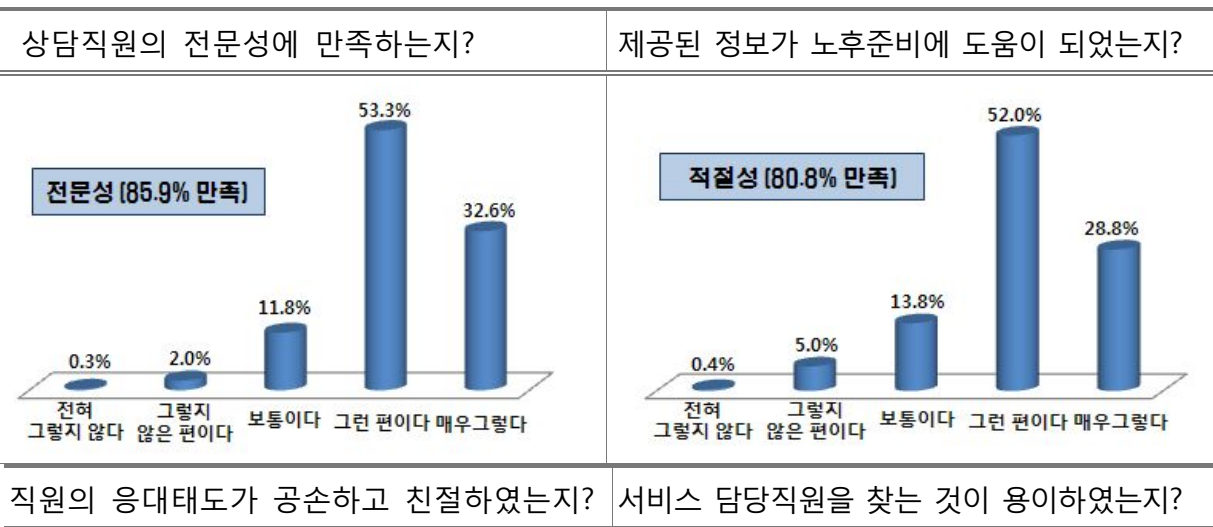
- 노후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30대 80.5%, 40대 84.8%, 50대 82.4%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행동(실천) 변화”는 30대 58.4%, 40대 53.3% 50대 52.2%로 나타남
- 30대에서 노후준비 실천 변화가 큰 것은 40~50대에 비해 비교적 준비여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설문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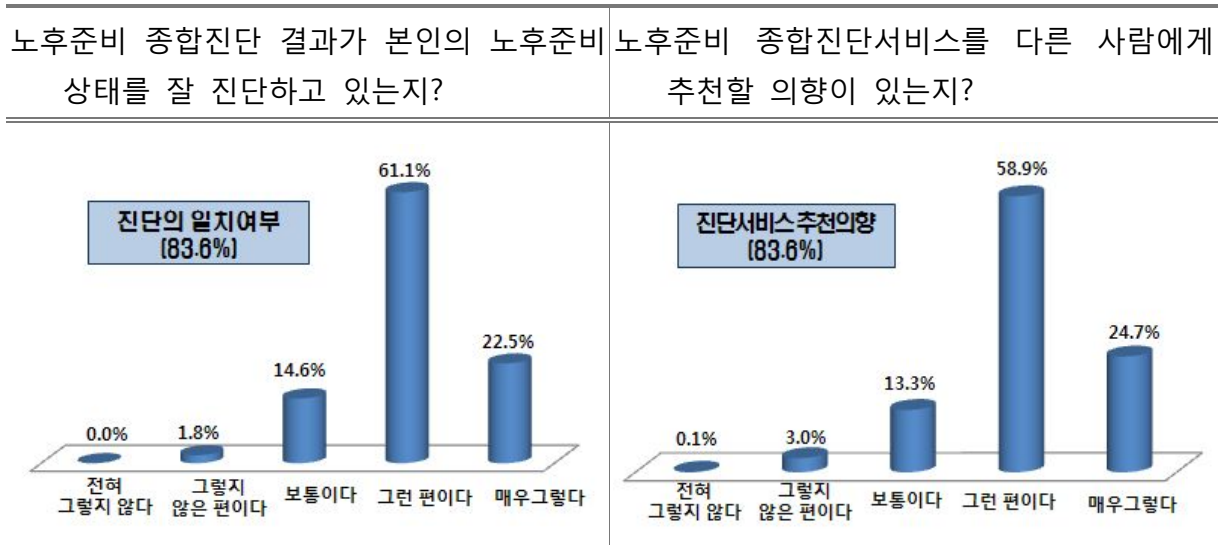
- 노후설계서비스 이용 전·후 변화



- 노후설계서비스 상담품질



-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활용도



□ 이슈 : 중고령층의 주관적 기대감과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중고령자의 주관적 생활만족도(삶의 질) 변수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였다. 최근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년기의 행복(well-being)은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건강에 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만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고령자의 특성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한 결과, 객관적 환경(소득, 자산, 건강, 주거, 고용상태 등)들이 우위에 있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고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삶에 대한 기대나 만족감의 변화양상은 객관적 환경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은 않고,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 서론

- 고령화사회에서 성공적 노화(healthy ageing)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노년기 행복(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주·객관적 요소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삶의 질이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만족 정도로 정의할 경우,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을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할 수 있음
 - 최근의 많은 실증연구들에서도 인간의 삶의 질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복합적인 작용이라는 점에 점차 동의가 이루어지는 추세
- 이 글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주관적 생활만족도(삶의 질) 변수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Ⅱ. 중고령의 주관적 기대감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들에게 경제적 상황, 기대수명, 생활수준과 정책 등 세 분야에 대해 주관적 기대감에 대해 측정
 - 경제적 상황은 유산과 근로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유산상속과 증여에 대한 가능성을 0~100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근로)에 대해서는 5년 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측정
 - 기대수명에 대한 기대감은 유사한 방법으로 64세 이하는 75세까지 생존가능성, 70세 미만은 80세까지, 79세 미만은 90세까지의 생존, 84세 이하는 95세까지 생존가능성에 대해 100점 척도로 설문
 - 생활수준과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수준 및 자녀세대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국가의 노후보장제도, 남북통일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에 대해 역시 100점 척도로 가능성을 예측하는 설문을 실시
- <표 -1>에서는 중고령자의 개인특성별 주관적 기대감의 차이와 변수분석(집단간 평균 비교)에 대한 결과를 제시
 - 우리나라 전체 중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 수준은 47.2점, 기대수명은 61.3점,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은 46.7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주관적 기대감은 46.8점으로 기대수명 부문 이외에는 50점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음
 - 남성 중고령자에서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한 일자리기대감, 기대수명, 전체 주관적 기대감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높았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은퇴세대는 모든 항목에서 근로세대의 주관적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고학력층일수록 일자리기대감, 기대수명, 전체 주관적 기대감이 높은 특징을 보여줌
 -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대수명에서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음
 -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은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에서 가장 높음.
 -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ADL(일상생활수행)수준별, 만성질환 유무별 주관적 기대감은 ADL점수가 높은,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자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일자리기대감과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
 · 반면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ADL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음

<표1> 개인특성별 주관적 기대감 차이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체		주관적기대감(평균점수)				t/F	P-값
			일자리 기대감	기대 수명	생활 수준	전체		
전체	15,980	(100.0)	47.2	61.3	46.7	46.8		
성	남성	7,503 (47.0)	57.0	64.9	46.7	47.7	6.63	0.0001
	여성	8,477 (53.0)	38.6	58.1	46.7	46.0		
연령	45-64(근로세대)	10,262 (64.2)	58.5	68.8	47.0	48.1	18.82	0.0001
	65+(은퇴세대)	5,719 (35.8)	24.6	46.4	46.1	44.2		
학력	초졸이하	6,371 (39.9)	32.1	51.8	46.7	45.4	31.45	0.0001
	중학교 졸업	2,858 (17.9)	50.2	62.9	46.9	47.2		
	고등학교 졸업	4,811 (30.1)	57.3	67.7	46.7	47.7		
	대학교 졸업이상	1,941 (12.1)	61.7	71.3	46.5	47.8		
지역	대도시	7,166 (44.8)	45.2	60.5	45.2	45.2	66.07	0.0001
	중소도시	5,192 (32.5)	50.4	65.5	47.5	47.8		
	읍면부	3,622 (22.7)	46.2	56.6	48.6	48.4		
ADL	일상생활가능(0)	15,381 (96.2)	48.5	62.5	46.8	46.9	29.9	0.0001
	경증(1~4)	360 (2.3)	16.1	33.5	45.7	42.8		
	중증(5)	22 (0.1)	7.0	29.8	45.7	42.2		
	최중증(6+)	218 (1.4)	8.0	24.4	43.4	40.2		
만성질환	있음	6,677 (41.8)	36.2	55.2	46.5	45.5	-9.37	0.0001
	없음	9,304 (58.2)	54.5	65.3	46.9	47.6		

주 1) ()는 비중을 의미함.

2) 빈도는 종단면가중치 적용한 수치이며, 무응답(모름 및 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한 것임.

3) 집단별 평균비교에 대한 통계량(t/F)은 전체 주관적 기대감 합산점수에 대한 것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년도(2008년) 자료

○ <표2>에서는 중고령자 가구·경제 특성별 주관적 기대감의 차이를 제시

- 전체 주관적 기대감은 결혼한 적이 없었던 미혼(43.6점), 사별(44.5점) 가구에서 낮고 미혼 및 사별 이외의 결혼상태에서는 대체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

<표2> 가구·경제적 특성별 주관적 기대감 차이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체		주관적기대감(평균점수)				t/F	P-값
			일자리 기대감	기대수명	생활 수준	전체		
결혼상태	유배우기혼	12,792 (80.0)	51.4	64.2	46.7	47.2	22.78	0.0001
	별거	132 (0.8)	52.2	65.1	47.1	47.5		
	이혼	376 (2.4)	51.6	60.3	47.8	48.1		
	사별(이산)	2,515 (15.7)	23.5	46.1	46.6	44.5		
	결혼한 적 없음	165 (1.0)	43.3	55.2	43.6	43.6		
가구소득	하위 20%	2,705 (16.9)	22.2	46.0	45.8	43.6	45.77	0.0001
	20-40%	2,976 (18.6)	40.4	56.2	46.5	46.0		
	40-60%	3,345 (20.9)	50.2	62.5	47.0	47.2		
	60-80%	3,848 (24.1)	55.7	66.1	47.2	48.0		
	상위 20%	3,107 (19.4)	59.0	70.7	46.8	47.9		
가구자산	하위 20%	3,144 (19.7)	39.0	53.0	46.3	45.6	13.14	0.0001
	20-40%	3,005 (18.8)	45.7	58.2	47.8	47.6		
	40-60%	3,075 (19.2)	47.9	61.9	47.3	47.4		
	60-80%	3,181 (19.9)	49.9	63.8	47.0	47.3		
	상위 20%	3,576 (22.4)	52.4	68.4	45.4	46.0		
주거형태	자가	12,717 (79.6)	47.4	61.7	47.1	47.1	7.69	0.0001
	전세	1,706 (10.7)	46.7	61.6	44.9	45.0		
	보증금있는월세	1,281 (8.0)	46.2	57.8	45.6	45.7		
	보증금없는월세	219 (1.4)	40.7	55.1	45.7	45.3		
	기타	58 (0.4)	48.0	64.8	48.2	48.2		
고용상태	임금근로자	3,550 (22.2)	68.9	72.1	47.3	49.2	142.57	0.0001
	사업	3,303 (20.7)	71.9	68.5	47.4	49.6		
	무급가족종사자	743 (4.6)	68.9	66.3	48.3	50.1		
	실업	188 (1.2)	64.9	70.1	46.8	48.5		
	비경활(은퇴)	3,460 (21.6)	19.4	52.5	46.2	43.7		
	비경활	4,737 (29.6)	26.9	52.3	45.9	44.2		
연금수급	수급	2,206 (13.8)	38.7	59.9	47.5	46.7	0.84	0.401
	비수급	13,774 (86.2)	48.3	61.5	46.6	46.8		

주·자료: <표1>과 동일

- 가구소득과 자산수준별 주관적 기대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전반적으로 주거안정성이 확보된 중고령자에서 일자리 기대감과 기대수명 등의 기대감이 높은 특징을 보임.

- 고용상태별로 기대감 수준과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사업, 무급가족종사자) 등 현재 노동시장 참여해 있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기대감, 기대수명,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은퇴 및 비경활상태에 있는 중고령자의 주관적 기대감은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
- 연금을 수급하는 중고령자의 경우 일자리와 수명에 대한 기대감은 비수급 중고령자에 비해 낮지만,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은 비수급자에 비해 높음

Ⅲ. 생활만족도

- 「고령화패널연구조사」에서는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생활전반에 대한 삶의 질(만족도) 수준을 100점 척도로 질문하고 동 항목에 대해 동년배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 본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3>에 제시
-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만족도는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0.2점으로 가장 높고, 배우자관계 만족도(68.3점), 생활전반 만족도(60.6점), 건강만족도(56.6점)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 중고령자가 모든 항목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전체 생활만족도는 남성이 61.4점으로 여성(58.2점)에 비해 3.2점 정도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 연령별로는 은퇴세대의 만족도가 근로세대에 비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특히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 학력별로도 저학력 중고령자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낮게 분석되는데 초졸이하 저학력층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54.0점으로 이는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67.4점에 비해 무려 13.4점 정도 낮은 수치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특징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만족도와 경제적 만족

도, 생활전반의 만족도에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고령자에서 건강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표3> 개인특성별 생활만족도 차이

구분	생활만족도(평균점수)					통계량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생활 전반	전체	t/F	P-값	
전체	56.6	50.6	68.3	70.2	60.6	59.7			
성	남성	59.6	52.1	70.2	70.8	61.8	61.4	6.33	0.0001
	여성	53.9	49.2	66.1	69.8	59.6	58.2		
연령	45-64(근로세대)	60.5	53.0	69.2	72.8	62.7	62.3	16.25	0.0001
	65+(은퇴세대)	48.8	45.8	65.7	65.6	56.4	54.7		
학력	초졸이하	48.6	44.1	64.7	66.3	55.2	54.0	186.86	0.0001
	중학교 졸업	57.4	49.7	68.2	70.6	60.7	59.7		
	고등학교 졸업	61.9	54.6	69.7	72.9	64.0	63.5		
	대학교 졸업이상	65.7	60.8	72.4	75.7	67.7	67.4		
지역	대도시	56.6	48.6	67.2	69.7	58.9	58.6	39.25	0.0001
	중소도시	58.6	53.7	69.9	71.1	63.4	62.0		
	읍면부	53.5	49.8	68.1	69.7	59.9	58.6		
ADL	일상생활가능(0)	57.8	51.2	68.5	70.6	61.4	60.5	155.65	0.0001
	경증(1~4)	30.7	37.0	63.1	60.3	46.3	44.3		
	중증(5)	18.2	31.2	62.0	47.7	35.0	36.2		
	최중증(6+)	18.2	28.9	54.5	55.0	31.7	33.4		
만성질환	있음	48.9	46.9	66.7	67.8	57.4	55.7	-13.17	0.0001
	없음	61.7	53.0	69.2	71.8	62.8	62.4		

주 1) 빈도는 종단면가중치 적용한 수치이며, 무응답(모름 및 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한 것임.

2) 집단별 평균비교에 대한 통계량(t/F)은 전체 생활만족도에 대한 것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년도(2008년) 자료

○ 가구·경제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수준은 <표-4>에 제시

- 이혼, 사별,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 중고령자에게서 건강 및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 전체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에서 40.6점으로 가장 낮고, 이혼(44.0점), 사별(52.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배우자가 있는 기혼 중고령자의 만족도(62.0점)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소득(자산)분위가 상승할수록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중고령자의 주거안정 여부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깊은 상관 관계로 추정
- 고용상태별로는 노동시장을 은퇴한 중고령자에게서 건강만족도가 가장 낮고, 실업상태에 놓인 중고령자에서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표4> 가구경제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차이

구분	생활만족도(평균점수)						통계량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생활 전반	전체	t/F	P-값	
결혼상태	혼인중	58.8	52.8	68.3	72.4	62.8	62.0	132.71	0.0001
	별거	54.7	42.2	-	65.8	54.9	54.2		
	이혼	46.6	32.9	-	58.6	42.8	44.0		
	사별(이산가족)	47.3	43.4	-	64.9	53.7	52.2		
	결혼한 적 없음	46.1	34.5	-	90.0	40.8	40.6		
가구소득	하위 20%	43.4	36.6	62.6	62.5	49.8	48.3	252.69	0.0001
	20-40%	51.3	44.2	66.0	66.9	56.1	55.1		
	40-60%	57.8	49.1	68.3	71.1	60.2	59.9		
	60-80%	60.8	54.2	68.6	73.1	64.2	63.1		
	상위 20%	65.1	64.0	72.3	75.1	69.0	68.3		
가구자산	하위 20%	46.5	32.9	62.1	62.6	48.0	47.9	334.78	0.0001
	20-40%	54.2	45.9	68.0	70.1	58.2	57.6		
	40-60%	57.5	51.7	68.8	71.6	61.8	61.0		
	60-80%	60.8	57.8	69.6	73.5	65.8	64.5		
	상위 20%	63.0	62.5	70.8	73.0	67.9	66.7		
주거형태	자기집	58.0	53.8	69.1	71.4	62.9	61.8	161.45	0.0001
	전세	53.8	43.7	67.0	68.5	56.0	55.9		
	보증금있는월세	49.2	32.8	62.1	62.8	48.1	48.5		
	보증금없는월세	40.7	22.8	54.3	57.1	37.0	39.3		
	기타	59.6	58.0	75.8	72.1	65.3	64.2		
고용상태	임금근로자	63.6	53.9	69.8	73.1	63.4	63.5	46.41	0.0001
	사업	62.4	53.9	70.4	73.1	64.0	63.5		
	무급가족종사자	58.9	54.2	68.9	72.4	64.0	62.6		
	실업	62.2	40.7	65.9	73.7	56.0	57.3		
	비경활(은퇴)	49.7	46.7	67.7	68.3	57.3	56.0		
	비경활	50.9	48.0	65.2	67.4	57.8	56.2		

주·자료: <표3>과 동일

IV. 결론

- 고령화사회에서 노년기의 행복(well-being)은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건강에 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만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중고령자의 특성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한 결과, 객관적 환경(소득, 자산, 건강, 주거, 고용상태 등)들이 우위에 있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중고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삶에 대한 기대나 만족감의 변화양상은 객관적 환경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은 않고,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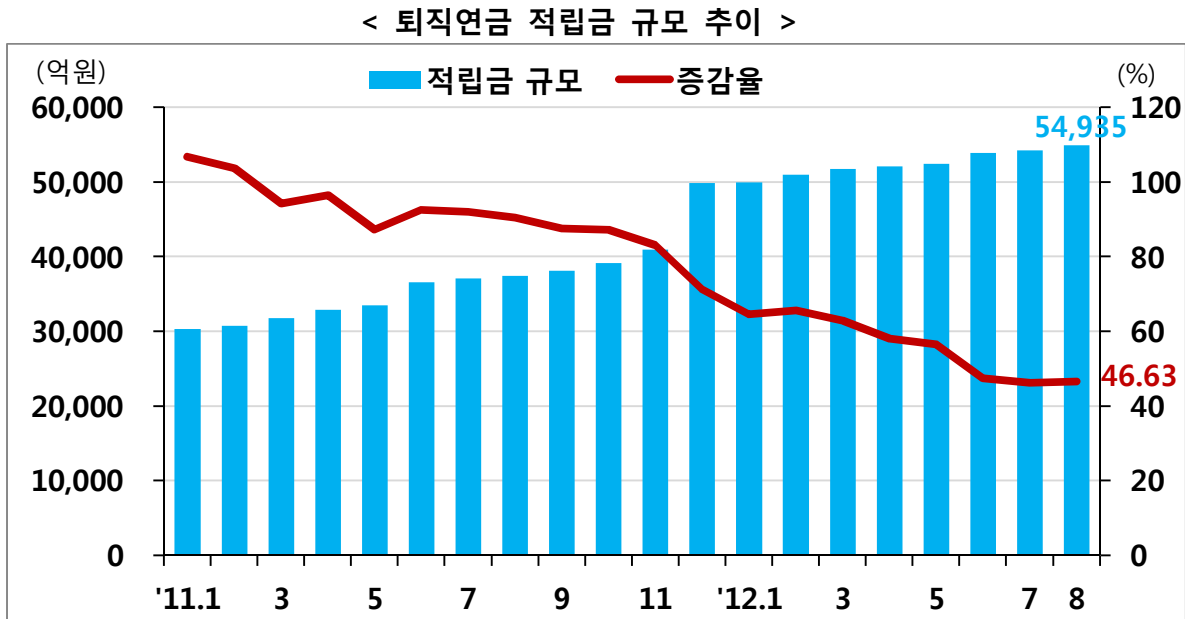
- 고령화가 일정정도 진전되고 진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노년기의 안정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보장성강화를 통해 연금제도를 견고하게 정비하고, 고용안정성 강화 및 고용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된 근로생애가 유지되고, 질 좋은 고령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의 개선이 필요
 - 또한 고령층의 활동성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선 또한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중요
 - 노년기에 경험되는 심리적 억압이나 역할상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결함에 대해 예방하고 치료하는 대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한편 노인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해줌으로써 물질적·심리적 결핍(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센터장 신종각 (02-2629-7400, cgshin88@keis.or.kr)

□ 퇴직연금통계 (2012년 8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8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4 조 9,350 억원으로 전년동기 (37 조 4,649 억원) 보다 17 조 4,702 억원 (46.6%)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80,350 개소로 전월(172,888 개소) 대비 7,462 개소 증가
- 총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1.9%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08,246	46,669	18,754	4,847	792	1,042	180,350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5	26.2	34.3	44.2	55.6	80.6	11.9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나만의 리듬을 찾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번이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달성 가능한 목표 하에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고 싶어 한다. 노먼 빈센트 필은「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저서에서, “무언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위로 오르고 싶고,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망은 기적을 만드는 재료들이다.”라고 말한다. 간절한 욕망을 가진다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매튜 캘리의「위대한 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수년간 만성피로와 싸워온 나는
 지금도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 일상의 과제다.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한 날은 마치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 더 나은 나를 본다.
 삶의 리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우리의 가장 큰 꿈,
 더 나아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먼저,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행복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나만의 속도 그리고 리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산길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체력을 생각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휴식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마라톤 경기를 예로 들면, '페이스 메이커'의 도움을 받는다면 달리기 훨씬 쉽고 원하는 시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삶은 한 번뿐이고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없다. 인생 여정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서 활기차게 살면서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어 가자.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

추운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 시듦을 알게 된다.

- 論語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